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교회가 나서야.

“우리는 무능을 넘어 모든 거짓과 음모를 겪었고, 견뎌낼 수 있었던 아이들을 시간을 늦추며 견지지 않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사와 기도로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행동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해주시고, 함께 선언해주십시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예비신학생 단원교 박성호 임파누엘의 어머니 정 세실리아 자매님의 호소

[제 1독서] 탈출34,4ㄱ-6.8-9
 [화답송] 다니3,52.53.54.55.56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제 2독서] 2코린13, 11-13
 [복음 환호송] 묵시1,8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복음] 요한3, 16-18

성가	8시 미사	입당 80	봉헌 220 511	성체 182 173	파견 82
	11시 미사	입당 80	봉헌 220 511	성체 182 173	파견 82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삼위일체대축일(6월 15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6월 22일)		성베드로와성바오로사도대축일(6월 29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조레지나(선덕)	이바로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임투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이바로로(명국)	허라우렌시오(순구)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최베네딕토(환준)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정스텔라(에리)	문골롬바(지영)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최베네딕다(수영)	김엘플레다(수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생명줄

오래 전 보좌신부 때의 일이다. 새벽 1시쯤 전화벨이 울려 받으니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이 병자성사를 원한다는 전화였다.

부지런히 성사 가방을 챙기고 사제관 문을 나서니 구역장님이 벌써 문 앞에 와 계셨다. 그 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구역장님이 환자분에 관해 말씀을 해 주셨다.

구역장인 자신도 그 분이 신자인지 몰랐다고 한다. 오밤중에 구역장님 집을 찾아온 환자분의 아들 얘기는 이렇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십자고상 하나 들고 고향인 섬에서 나와 바빠 살면서 천주교 신자 생활은 못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부님을 간곡히 모셔달라고 해서 염치 없지만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 보니 가족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았고 빼만 앙상한 환자분이 방 한가운데 누워계셨다. 숨을 헐떡이고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신부가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손을 뻗어 내 손을 잡는 것이었다.

다른 손에는 새까만 십자가가 쥐어져 있었는데, 평생을 같이 한 십자가인 것 같았다. 이미 얼굴은 죽음의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신부님 기다렸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신부님을 뵈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고백을 이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같이 있던 모든 분이 눈물을 흘렸다. 병자성사를 드리기 위해 십자성호를 그으실 때는 어떻게든 본인 힘으로 해보고자 안간힘을 쓰시는 모습도 보여 주셨다. 성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하느님과 화해 하셨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라는 얘기에 고맙다는 말씀과 환한 미소까지 보여 주셨다. 그리고 잠시 뒤 내 손을 잡고 임종하셨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몸에 그리고 기도를 바친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오랜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습관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몇몇 분들에게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함께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간곡함을 담는 이유는 그 이름에 결국 ‘생명줄’ 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갈매꽃 성지에 ‘예수님을 얻는 것이 전부를 얻는 것이다.’ 라는 글이 생각난다. 하지만 요즘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도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그러나 그 손을 놓는 순간 아기 옆에 엄마가

없는 것처럼 하느님의 부재는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을 어느 순간에 체험할 수밖에 없다. 요즘 많은 이들이 자기 생명과 존재 가치를 세상의 다른 목표와 이름들에서 얻어 보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성제현 루카 신부
인천교구 심곡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Narcisse)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소년(美少年)이었던 그는 소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나르시스를 차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에코(Echo)’의 짝사랑에 응하지 않은 나르시스는 신(神)들의 벌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샘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구부린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사람이 그곳에 있었지요.

나르시스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물가를 떠나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것까지 잊고는 결국 빠져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그것이 ‘자기애’ (自己愛)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수선화입니다. 나르시스가 죽은 이유는 결국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너’가 아니라 ‘나’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애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완벽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의 완벽한 존재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불경스런 표현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완벽함에 도취(?)되어 계시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을 바깥으로 끊임없이 발산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마침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머물게 하십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은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르시스와는 비교도 될 수 없 분이시지만, 허점투성이인 이 인간조차도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더 크게 사랑하시기 위해 너무 작은 인간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붓고 계십니다.

성부로 사랑하시고, 성자로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는 우리가 나르시스처럼 잘났다는 듯이 자기 속에만 빠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나를 위한 시간은 너무 많고, 타인을 위

한 시간은 아깝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듣고, 오직 내 방식, 나의 의견만이 옳은 것 인양 타인을 몰아붙입니다.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사용할 때에도 어쩌면 그렇게 나 위주로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만 완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완성의 길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이 외부로, 타인에게로 분출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더 크게 성장해서 자신에게 되돌아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해 줍니다.

나도 하느님처럼,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강귀석 신부
서울 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말씀의 향기

딸아이 앞에서의 고백

딸은 월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살이 찌고, 월경통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월경이 시작되는 하루나 이틀 동안에 진통제를 시간마다 먹어서, 혹시나 습관이 되지 않을까 본인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게으른 어머니는 10여 년을 그리 보낸 후에야 딸아이와 함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진맥을 한 의사 선생님은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신경성 같은데, 어린 시절 아이가 먹어야 할 때 배를 곯은 적이 있느냐?” 고 제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도 마음이 허기져 계속해서 먹게 되고 식욕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경통은 자신이 여자이기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신체적 질병이 마음의 병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딸의 통증이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딸아이가 6살쯤,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하기에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아이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신경성 위장염입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괜찮은 엄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엄마였습니다. 딸아이는 편식 없이 아무거나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잘 먹을 때는 많이 먹는다고 야단을 치고, 아이가 먹지 않으면 왜 안 먹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하는 딸은 음식을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할 수 밖에요.

엄마인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이에게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몸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니 속속들이 죄짓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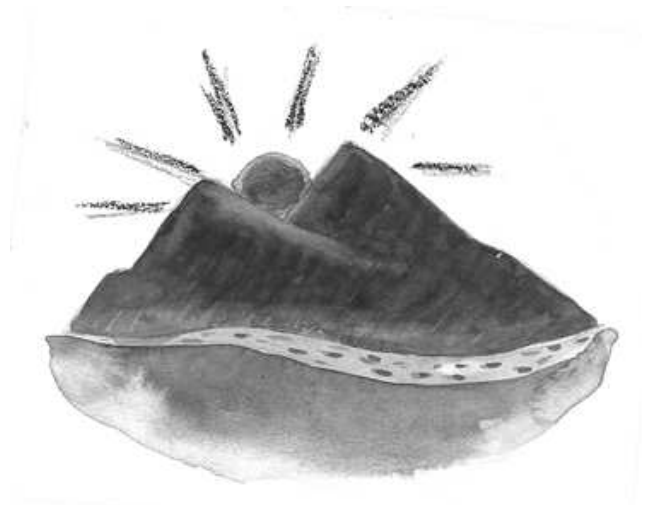
딸아이랑 늦은 점심을 먹으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미안하다. 기억해보니 어머니가 너에게 ‘예쁘다’ 든지 ‘사랑

한다’ 는 말을 해본 적이 없구나. “네가 많이 아팠을 것이다. 어머니가 정말 미안 하구나...”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살이에서 오는 분노와 억압, 내 모든 감정의 탈출구로써 딸아이를 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 어머니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자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딸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진심으로 딸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상처가 사과 한마디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머니의 어둠에서 벗어나 환한 세상으로 나아가 제 딸이 비상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윤미숙 베로니카
그림에니어그램 연구소 소장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당신 집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글-헨리 나웬 / 그림-김윤경

가톨릭전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사람들은 말로써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큰 위로와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대화와 나쁜 대화가 있습니다. 나쁜 대화는 욕설, 비방, 불평, 강압적인 명령, 잔소리, 자기 혼자 떠들기 등입니다.

좋은 대화는 부탁, 감사, 용서 청함, 사랑고백(찬양) 등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방법이나 기도 시간, 기도 자세보다는 기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1) 청원 기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원입니다.

- (기도의) 가장 일상적인 형태는 청원이며, 이는 청원이 가장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청원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起源)도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주인도 아니며, 우리의 궁극 목적도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버지께 등을 돌린 죄인임을 알고 있다. 청원은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섬을 의미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29항).

“우리 아들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 내게 해주세요, 아픈 아버지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같은 청원기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복신앙(祈福信仰)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 기도는 기도를 배우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청원 기도의 내용도 성숙해 가야 합니다.

- 용서를 청함은 청원 기도의 첫 단계이다(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세리, 루카 18,13). 용서를 청함은 올바르고 순수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31항).

- 그리스도인의 청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가오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바라고 찾는 것에 집중된다. 청원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하느님 나라를 청하고, 다음에는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의 도래에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청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32항).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 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지난주 우리의 정성																			
6월 15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해경)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8시</th> <th>11시</th> <th>영어미사</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미사참석인원</td> <td>87</td> <td>204</td> <td>-</td> <td>291</td> </tr> <tr> <td>헌금</td> <td>\$623</td> <td>\$1,321</td> <td>-</td> <td>\$1,944</td> </tr> </tbody> </table>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7	204	-	291	헌금	\$623	\$1,321	-	\$1,944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7	204	-	291																				
헌금	\$623	\$1,321	-	\$1,944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조마오로(동완)		육아오스딩																				
	연	조마오로(동완)		김데레사																				
	연	홍요한		이안나(순자)																				
	연	홍베드로		이안나(순자)																				
	연	김중화		정데레사(해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해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연	오제성		이베로니카가족																				
	연	오제성		9구역 일동																				
	생	채토마스		채헬렌																				
	생	양마르코/수산나가정		박데레사																				
	생	이요셉/세레나가정		박데레사																				
	생	박스테파노/실비아가정		박데레사																				
	생	이베네딕토/유스티나가정		박데레사																				
	생	공그레고리오가정		박데레사																				
6월 17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6월 18일 수	연	이상남		채줄리아																				
	생	신마태오		채줄리아																				

< 교무금 > \$4,218

김영순(5) 강수영(4-5) 유춘성(5) 유경돈(5)
 조상희(6) 배젼마(5-6) 김순이(6) 채용분(6)
 김관숙(6) 전숙희(6) 송분학(6) 남금지(6)
 조관식(6) 정경희(5-6) 송인환(2-7) 조진석(1-6)
 최순일(6) 김현수(4-6) 임승원(5-6) 이병열(6)
 이명란(6) 전문자(6) 황정희(5-6) 성동화(5-6)
 김정복(6) 박호영(6) 이옥경(5-6) 김옥녀(6)
 이해경(6) 조우송(7) 이건용(5-6) 천종욱(6)
 육승주(6)

< 성소후원금 > \$70

김순이(6) 채용분(6) 전숙희(6) 송분학(6)
 이명란(6) 김정복(6)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권창모 \$100

< 2차 헌금 > \$771

~~~~ 오늘 간식은 채성일 토마스/줄리 맥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예비자 교리 신청

입교식 : 7월 6일 교중미사 중  
예비자 분들이나 예비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평협회의 : 6월 15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울뜨레야 모임

6월 15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6월 26일부터 있을 꾸르실료 주말에 대한 토의

◆ 요아킴회/안나회 आयुही

일시 : 6월 20일(금) 아침 8시 반 ~ 저녁 6시  
장소 : Angel Island(오클랜드에서 선편으로 왕복)  
집결지 : 아침 8시 20분 Jack London Sq. 유람선 선착장  
회비 : \$10(회원 외 본당 교우 누구나 환영)  
신청 : 6월 17일까지 요아킴회 총무/안나회 회장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6월 26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 대건장학회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8일 ~ 7월 27일  
장학금 수여식 : 8월 17일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oakcc.scholarship@gmail.com

◆ 서중부 남성 영어 꾸르실료 제11차 수강자 모집

기간 : 6월 26일(목) ~ 29일(일)  
장소 : Holy Redeemer Retreat Center  
접수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 주일학교 여름 캠프

- High School Camp(incoming 10th to 13th graders)  
: July 27 ~ July 30(costs \$180)  
- Junior High Camp(incoming 6th to 9th graders)  
: July 30 ~ August 1(costs \$145)  
\* \$20 sibling discount  
문의 : campdirectors@gmail.com  
\* 주일학교 캠프 기금마련을 위하여 7월 6일 교중미사  
후 카레(\$5)를 판매합니다.

◆ 제 20 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9일(토) 오전 8:30 - 오후 6:00  
주제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록21:5)

강사 : 차동엽 로베르도 신부님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접수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단체 버스로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여 주십시오.  
(버스비 : \$10, 환불 불가)

◆ 교황님과 함께하는 한국 성지순례 5박 6일

순례비용 : \$900 + 항공  
접수마감 : 6월 19일까지  
접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00을  
트라이밸리 성전 기금마련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월드컵 시청 안내

다음주 22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에서 한국 대 알제리  
월드컵전을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4-2015)**

- 6월 말까지 : \$285  
- 그 이후 : \$300 \* 개강일 : 9월 6일